

# 알아듣든 말든...통역사 없이 한국어로만 형식적 교육



## 긴급 점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안전한다

〈중〉 안전교육 없는 위험지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의 부재·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성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작업뿐 아니라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를 주민등록인구 대비 분포로 보면 상위 20개 시군구에 영암(3.53%)과 완도(3.31%)가 전국에서 3번째와 4번째를 차지했다.

인구등록 대비 진도가 3.01%로 전국에서 6번째로 외국인노동자가 많았다. 단순 숫자라면 봐도 광주시 광산구에 2664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중 19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의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분포해 있지만 이들은 안전교육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전남 캄보디아 공동체 외국인 쉼터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에 참여한 40여명의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의 실효성

영암·완도 등 외국인노동자들  
작업지시만 있고 대응교육 없어  
안전교육 부재·부실에 위험 노출  
반기별 2번 교육 이수 의무에도  
미이행 과태료 10만원에 무관심

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통역사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만 진행되거나 강의 이수 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인 안전교육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지페스날(여·27)씨는 “일터에서 모든 지시가 한국어로만 이뤄져서 사실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위험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많다”며 “불이 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을 모르다보니 안전교육만이라도 통역사가 간절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작업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을 하고, 또 작업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작업기계 설치 사용법 교육,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대피로 숙지 등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목소리로 내실없는 교육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무이크(35)씨는 “일하다가 실명한 동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기계 작동법을 제대로 알면 부상위험이 적을 텐데 사고가 나면 기계를 제대로 정지시키는 법조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 농·어촌에서도 안전교육은 찾아 볼수 없다고 한다.

광주의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소펠(여·29)씨는 “농장에서 작업지시만 있을 뿐 똑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농장에서도 낫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항상 두렵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사업주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다. 반기별로 2번 이수해야 한다. 사무직과 판매업은 6시간, 이외 분야 노동자들은 1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약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한다.

사업주들이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 노동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반기별)만 지불하면 돼 굳이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고용노동청의 점검 시 제출할 교육 이수 서류를 노동자들의 사인만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진술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순임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라며 “안전보건교육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들이 배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안전교육이 되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미이행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전남 캄보디아 공동체 외국인 쉼터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광주민중의집이 주최한 안전보건교육을 듣고 있다.

### 사건 인사이트

## 휠체어펜싱 국대 감독 무죄→유죄 왜?

여성코치 추행 혐의...선수들 “감독이 써준 초안 보고 진술서 작성”

여성 코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과를 뒤집은 가장 큰 이유는 증인들로 나선 펜싱 선수들이 A씨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부터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한 A씨는 해남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국가대표 경기보조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주변 펜싱선수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인 17일 ‘술어서 눈이 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뒤 21일 선수들과 술자리에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적장애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이유는

무죄 받았는데 또 범행...법원 “지시 문제없이 수행하고 의사표현 명확”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중증 지적장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을 찾아가 총 6120여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 수거책임을 알지 못한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9년 검사에서 IQ가 46, 사회연령이 만 9세, 사

회지수가 56으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6월 동종 범행으로 기소됐지만 당시 대원지법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점, 광범의 지시를 모두 문제없이 수행한 점,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의사표현이 명확한 점 등을 보면 현금 수거책 범행의 내용과 불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검찰총장 “교제폭력, 구속수사 원칙”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교제폭력 범죄’ <6월 24·27일 광주일보 6면>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

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제한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미비한 법제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스톱강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공판 단계에서 기습공탁 등 형이 부담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